

# 간선로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 전주시, 시내버스에 이동식 CCTV 설치 실시간 단속

전주시가 시내버스에 탑재된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단속으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인도와 버스베이 등에 단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팔달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시내버스 통행량이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0대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다. 단속방법은 선행 시내버스가 주행 중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한 후, 배차간격 10분 이후 같은 장소를 지나는 다른 시내버스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차량을 촬영한 경우 위반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기존 고정형 단속시스템과 이동식 차량 단속시스템은 촬영위치가 노출돼있어 단속을 피하는 압제 운전자들이 있었지만, 이번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 노선 구간에서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3월까지 단속시스템을 시범 운영, 불법주정차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정을 발송해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름다운 팔걷기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0일 1층 정문광장에서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팔걷기' 한철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과 더불어 SNS에 팔을 걷은 인증사진과 해시태그(#롯데백화점 한철 캠페인)를 공유하면 백혈병 및 소아암 환아들에게 1건당 2,000원을 지원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전주시 홈페이지와 단속구간 버스정류소 안내, 현수막 및 홍보전단 등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단속시스템 운영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시내버스 단속시스템은 시스템

여간상 기준에 운영돼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과는 달리 불법주정차시 1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김영재 기자

## 김현덕 의원, "한벽당 요월대 원형대로 복원을"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한벽당 요월대를 원형대로 복원할 것을 전주시에 주문했다.



김현덕 의원(삼천1·2·3동, 효자1·2동)은 20일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문화재 복원의 제1원칙은 원상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에서도 복원은 고증에 의해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재 복원은 일부분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시점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되찾는 행위가 때문에 잘못 복원하면 자칫 후대에 왜곡된 역사를 남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 문화재 복원의 경

우, 행정 편의적인 복원이 비밀비재로 이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벽당 요월대의 경우 최초 건축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진으로 확인해 본다면 1912년에서 1926년 사이에 세워졌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소실된 요월대는 지난 1986년 전주시 주도로 다시 복원했다.

김 의원은 "1912년에서 1926년 사이 세워진 요월대는 '달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이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 방향이 달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전주시 주도로 요월대 복원이 이뤄지면서 방향이 남쪽으로 틀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복원이 명확한 사진 자료와 지역 일로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고증을 거쳐 복원이 이루어졌다면 요월대가 지금처럼 이름과 부조화를 이루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형 그대로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지검, 김 교육감 집무실 등 도교육청 압수수색

전주지검은 지난 20일 인사 전철 의혹이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집무실 등 전북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색은 김승환 교육감이 상주하고 있는 교육감실을 비롯해 비서실과 부교육감실·총무과·인사과 등 정방위적으로 컴퓨터와 서류, 업무 수첩등을 압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초 김 교육감이 자신이 희망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은 매년 근무성적평정이 결정되는 달에 미리

인사담당자에게 사무관으로 4급 승진 임용 인원 수를 보고 받은 후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직접 만들어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대상으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북교육감 6년 6개월 동안 17번째 검찰고발을 당했다"며 "감사원의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진실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감사원의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 불꺼진집 침입현금훔친20대검거 전북경찰, 밤거리 야간합동순찰

전주지역경찰서는 20일 야간에 불꺼진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29, 남)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1월 19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의 한 원룸의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방안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을 위한 야간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

남원지구대와 서부파출소, 송천2파출소, 팔복파출소 등은 시민경찰들과 함께 20일 저녁 범죄에 취약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범죄에 취약한 현금다액취급업소 주변, 여성 안심플러스존, 상가 밀집지역, 여성 1인 근무업소 등 전방위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며 시민을 보호했다.

/김민근 기자

## "버스승강장 무정차 운행 근절해야"

###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 5분 발언서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이 버스 노선개편과 함께 고질적인 문제인 버스 승강장 무정차 버스운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승복 의원은 20일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내년 2월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며 "버스 승강장을 지나쳐 무정차로 운행하는 버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주시 버스 122개 노선 중 34개 노선 112대의 버스를 타고 승하차 승강장 포함 총 672개소의 승강장을 이동하면서

버스 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복을 포함한 승강장 672개소 중 승강장에 정상적으로 정차한 경우는 268개소 39.8%에 불과했다.

무정차한 경우는 39개소 5.8%, 불법주정차 등 정차 방해로 인한 비정상적 정차는 221개소 32.8%, 교통방해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정차한 경우는 114개소 16.0%로 확인됐다. 또, 무정차와 정차방해 없는 비정상적 정차가 전체의 20%로 버스 노동자 개인성향의 문제로 판단하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강장 672개소 중 중복을 제외하면 204개소로, 이 중 2회 이상 중복해서 거쳐간 승강장은 161개소로 조사됐다.

161개 승강장 중 비정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정상정차 승강장은 19개소 11.8%, 항상 방해물에 의해서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진 곳은 41개소 25.4%, 방해물이 없이도 항상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진 곳은 53개소 32.9%, 연속적으로 무정차 승강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방해물 없이도 비정상 정차한 승강장은 672개소 중 114개소로 16%에 해당하지만, 중복을 제외한 승강장 161개소에서는 53개소 32.9%로 두 배를 넘는다는 사실은, 버스 노동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의 정차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 정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제가 이용한 버스가 전체의 버스 노선의 27%이고, 전주시 총 승강장 1000개소의 18%로서 계획적으로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승강장 이용 시스템과 승강장 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주형 시간제 모델 만들기 위해서는 간이 환승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환승터미널을 구축, 전주의 모든 구역으로 버스 노선을 분산시키는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재 기자

## 보험사기로 1억 4000여만원 행인 50대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발목 염좌 등으로 194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10여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이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쉽고 입원 중에 무단외출이 쉬운 병원들을 전전하며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보험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일부 보험회사에는 피해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